

한국과 일본, 그 숙명적 관계

고대부터 개항기·식민지 시기, 미래의 전망까지

손승철

강원대 교수·사학

한국과 일본의 숙명적 관계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역사 이래 미묘했고, 현재에도 그러하며 또한 미래에도 그럴 수밖에 없다. 어쩌면 두 나라의 역사는 서로가 서로의 '관계(關係)를 어떻게 정립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한일관계'가 우리의 역사현실과 이렇게 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소홀했다. 더구나 그 연구도 주로 일본인에게서 시작되었고, 대개 식민사학을 정당화하기 위해 출발했던 만큼, 그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간에 존재하는 연구의 불균형이 서로에 대해 편견을 만들어내고, 이 때문에 한일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더욱 어려워진다. 현재 한국에서 출판된 한일관계서는 총 80여종에 이른다.

■ 한일관계의 개괄적 이해

- 한일교류 2천년/열화당 엮음/열화당
- 한일문화교류사/김태준 외/민문고
- 강좌 한일관계사/조항래 외 엮음/현음사
- 한일관계의 재조명/이면우 외/이론과실천
- 일본역사와 한일관계/유상중 지음/학문사
- 한일관계사의 재조명/역사학연구회/이론과실천
- 한국과 일본-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한일관계사학회/자작나무
- 한일교류사/이진희·강재언/학고재

이 가운데 《한일문화교류사》와 《강좌 한일관계사》는 각 시대의 주제들을 현직교수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책으로 우리나라에서 한일관계사 연구의 수준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는 최근 발간된 《한국과 일본-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를 추천하고 싶다. 이 책은 '한일관계사학회'의 소장학자 36인이 선사·고대에 서부터 현대까지 역사적으로 한일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왔고, 또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 54개의 주제로 나누어 공동집필했다. 특히 각 현안들에 대해 일본의 입장은 어떠한가를 함께 다루고 있어 양국의 입장을 상호비교할 수 있으며, 36명의 집필자들

을 통해 한일관계사 전공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도 있다.

■ 선사·고대 시대의 한일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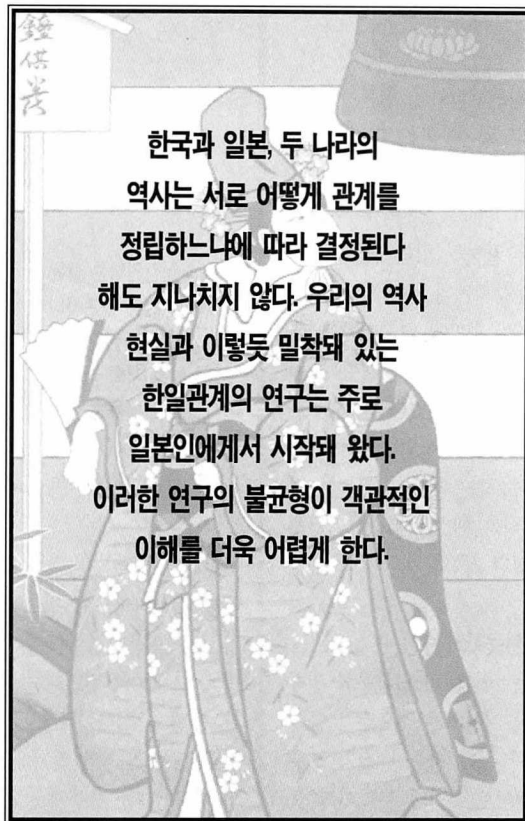
- 한일 고대 문화교섭사연구/홍순창 외/을유문화사
- 한일고대불교관계사/田村圓澄/학문사
- 한일고대문화의 연계/한일문화교류기금 엮음/서울프레스

- 고대한일정치교섭사연구/정효운/학연문화사
- 고대한일관계사 연구상의 제문제/이진희/한일문화교류기금
- 도작의 문화와 한일관계/이춘영/한일문화교류기금
- 고대한일관계사 연구/손대준/정훈출판사
- 고대한일관계사의 이해/이노우에 히데오/이론과실천
- 임나국과 대마도/이병선/아세이문화사

선사·고대시대의 한일관계는 주로 일본문화의 원류와 한일간에 문화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책들이 많다. 이들 책은 한일고대의 쟁점이 되고 있는 임나일본부 문제나 일본고분과피장자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고려시대 한일관계로는 유일하게 《한국중세 대일교섭사 연구》(나중우 지음)가 있다.

■ 조선시대 한일관계

- 조선전기 대일교섭사연구/이현중/한국연구원
- 조선전기 대일무역연구/김병하/한국연구원
- 조선시대 일본과 서적교류연구/이준걸/홍익재



- 여행과 체험의 문학/소재영·김태준/민족문화문고
- 근세한일의 교비사/손승철/강원대출판부
- 근세한일관계사/"/강원대출판부
- 근세한일관계사연구/"/이론과실천
-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지성의샘
- 조선통신사의 문학/이혜순/이화여대출판부

출판부

- 조선통신사와 일본/미야케 히데토시/민음사
- 조선통신사/이원식/정음문화사
- 조선통신사/나까무라 에이고/동호서관
- 조선통신사의 발차취/김의환/정음문화사
- 조선통신사/신성순·이근성/중앙일보사
- 한국 속의 일본/이진희/동화출판공사
- 한국과 일본문화/"/을유문화사
- 일본 속의 한국/노성환/울산대출판부
- 한국실학과 일본/하우봉/한울
- 조선후기실학자의 일본관연구/"/일지사
- 임진왜란 포로실기연구/이채연/박이정

조선시대의 한일관계 관련서는 우호교린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통신사에 관한 서적들이 대부분이다. 통신사의 행적이나 문화교류의 실상을 밝힌 책들은 문화사의 관점에서든 매우 흥미롭다. 특히 손승철은 일련의 저서와 번역서를 통해 조선시대 한일관계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교린(交隣)에 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하우봉은 조선실학자들의 일본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인의 일본관 연구에 초석을 놓았다.

■ 개항기 한일관계

- 개항기 대일관계사연구/조항래/형설출판사
- 청일전쟁과 한일관계/한국사연구회 엮음/일조각
- 일본근대정치사/배성동/법문사
- 근대한일관계사연구/모리야마 히게노리/지성의샘
-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이태진 편저/까치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을 펴낸 이태진은 일본의 대한제국 주권침탈과정과 한일합방 조약의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일제의 점철된 강제, 기만, 범법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 식민지 시대와 식민지 청산의 문제, 한일관계의 현안

- 일본의 현대화와 한일관계/고병익 외/문학고지성사
- 신일본 패권주의와 한일관계/사월회·신용하/김영사
- 빼앗긴 조국, 끌려간 사람들/한일문제연구원/아세이문화사
- 일본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중앙일보 통일문제연구소/한길사
- 한국과 일본/하영선 엮음/나남
- 광복50년과 한일관계의 재조명/한국 일본유학인협회/한남대출판부
- 한일관계의 정치적 조명/배성동/중앙일보사
- 한일합방사/안병무/범우사
- 한일 50년은 청산되었는가/김용수/고려원
- 일제잔재, 무엇이 문제인가/한상범/법률행정연구원
- 한일간의 미청산과제/한국정신대연구회/아세이문화사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한국정신대연구회/역사비평사
- 정신대/김정면/일월서각
- 한일관계의 재조명/이면우 외/세종연구소

특히 한국정신대연구회에서는 한일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정신대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루고 그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한편 해방후 한일관계가 재개되는 법

갖고 싶은 책 알뜰하게 사볼 기회

'98 알뜰도서전 열려... 5월 21일부터 7일간



평소 갖고 싶었던 책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알뜰도서전'이 열린다. 한국출판협동조합(이사장 박기봉)과 KBS문화사업단이 주최하고 금강기획이 주관하는 '98 알뜰도서전'이 5월 21일부터 27일까지(7일간) 여의도 중소기업전시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

사에는 창작과비평사·문학과학지성사·문예출판사·민음사·고려원·세계사·사계절 등 120여 출판사들이 참여해 출간된 지 2년이 지난 단행본류·교재류·전문서적·아동서적 등을 판매한다. 가격은 출판사 자물에 맞기지만 대체로 정가의 절반 수준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개장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번 행사에는 저자와의 만남·대담 및 사인회·연예인 일일판매·가훈 써주기 등 내방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린다. 출판관계자들은 이번 행사가 연간 4천억을 넘는 재고도서를 독자들에게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독서인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02-716-9741)

적 근거가 된 1965년 한일조약의 문제점에 대하여 《한일협정을 다시본다》(민족문제연구소 엮음, 아세아문화사)과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이원덕, 서울대출판부)이 있다.

2년 전부터 그동안 연구가 소홀했던 독도에 대하여 본격적인 연구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 16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최근 찾아지는 일본인들의 망언을 분석한 《일본 망언의 계보》(다카사키 소오지 지음, 한울)와 《망언의 뿌리를 찾아서》(한계욱, 자유포럼)가 있다. 한편 21세기를 맞이하여 한일 양국이 새로운 동북아의 지역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제안하는 미래에 관한 서적들도 속속 출간되어 공존의 한일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 한일관계의 미래 제시

- 21세기 한일관계/현대일본학회/법문사
- 21세기의 세계와 한일관계/동아일보사/동아일보사
- 광복50년과 한일관계의 재조명/김이화 외/한남대출판부
- 신세대의 한일관계/고려원
-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일관계/한승조/집문당
- 한일관계론/최경락·조희완/대왕사
- 한·일관계 변화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민족통일연구원/민족통일연구원
- 한일관계의 장애/고대 민족문화연구소 엮음/고려대출판부

한가지 덧붙여줄 것은 한일관계에 관한 연구단체다. 현재 '한일관계사학회'가 있는데 소장학자 15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연구논문집 《한일관계사연구》(1~8, 현음사)와 《한일관계사논문저록》(현음사)을 발간하여 한일양국의 연구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

* 이상의 자료들은 주로 국사편찬위원회의 소장 도서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정부 지원(융자)금 활용방안 발표

정부의 출판계 긴급 지원(융자)금 200억원의 활용방안이 발표되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사장 나춘호)는 지원금을 출판유통구조의 현대화 사업에 150~130억원, 정보·전산화 지원 사업에 70~50억원, 양서출판사업 지원에 여유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또는 1~3년 전액 상환의 조건과 연리 6%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5월 2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한편 이자율 16.5%가 적용될 예정인 300억원의 양서출판 지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02-735-2701~4).

소천·계몽사 아동문학상 시상

계몽사(회장 김춘식)가 주관하는 32회 소천 아동문학상과 17회 계몽사 아동문학상 수상작 및 수상자에게 대한 시상식이 지난 5월 12일 계몽문화센터 아트홀에서 열렸다. 소천 아동문학상은 《낙엽 한 장만한 바람》(교학사)의 김은숙씨가 받았다. 계몽사 아동문학상의 장편동화·소년소설 부문은 《바람은 동쪽으로 분다》의 한혜영, 동요·동시 부문은 《돌부리》의 이혜영씨가 받았다. 단편



김은숙씨.

동화 부문은 《아기 도깨비와 밀 곡령》의 함영연과 《부처님의 코는 어디로 갔나》의 홍종익씨가 공동 수상했다.

특별상 부문

에는 《아이는 눈을 감고 웃었다》의 김문희와 《진달래 꽃 필 때까지》의 최동일씨가 받았다.

제30차 청소년 권장도서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권승혁)은 30차 청소년 권장도서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발표된 11개 분야 35종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문학: 게르트 호프만·김원익 역 《행복》(찬식), 성석제 《궁전의 새》(하늘엔못), 박완서 《어른 노릇 사람 노릇》(작가정신), 신경림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창작과비평), 러셀 베이커·송재훈 역 《성장》(집사계). ▲역사: 김성환

《교실밖 세계사 여행》(사계절), 신봉승 《역사 그리고 도전》(답계), 조관희 편 《한권으로 정리한 이야기 중국사》(청아), 한승조 《인류역사와 세계명문》(집문당) ▲정치·경제·경영: 서진영 외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삶과꿈), 자유지성 300인회 《한국, 재도약을 위한 결단》(삶과꿈), 임종철 《자본주의에 대한 단상》(민음사), 이또 요이치·윤영걸, 계도윤 역 《스피드 경제》(지식사회), 존 네이스비트·정성호 역 《글로벌 패로독스》(한림미디어), 서재명·곽수일 외 《세계가 열린다 미래가 보인다》(해냄) ▲사회·철학: 조벽·최성애 《한국인이 반드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명진출판),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한울아카데미), 이규호 《만약 인생이 싸움이라면 용기를 가져라》(말과창조사), 성염·김석수 외 《인간이라는 심연》(철학과현실사), 레이먼 그 스머리언·이종권, 박만영 역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문예출판사) ▲과학·교양: 이광주복 《만두이의 물리귀신 따라잡기》(한승), 김용서·제종길 《해양과학총서 3 해양생물의 세계, 4 해양오염과 지구환경》(한국해양연구소), 다이엘 에프리 외 《시공 디스커버리호 7차분 - 호치민 외》(시공사), 박희병 편 《선인들의 공부법》(창작과비평), 조병준 《제 친구들하고 인사하신타요》(그린비/박가서·장) ▲예술: 최종태 《나의 미술, 아름다움을 위한 사색》(열화당), 정양모 《고려청자》(대원사), 라이너 릴케·안상원 역 《릴케의 로망》(미술문화), 훗타 요시에·김석희 역 《고야 1~4》(한길사), 잉그마르 베리만·오세필, 강정애 역 《잉그마르 베리만의 창작노트》(시공사) ▲아동: 송년식 글·강미선 그림 《본홍 양말 신은 작은 새》(문원), 이규환 《하늘을 나는 양》(드로와인젤), 신현득 《고향술집》(미리내), 선안나 글·최민주 그림 《용이 사는 마을》(교학사), 한국아동문학인협회 《마음이 따뜻한 이야기》(한국어린이교육연구원)